

남북 단일팀 역사적 첫 승 향한 '최후의 도전'

내일 스웨덴과 여자아이스하키 7~8위 결정전

남북 여자하키 단일팀이 역사적인 '첫 승'을 위한 최후의 도전에 나선다. 단일팀의 마지막 상대는 스웨덴이다.

단일팀은 18일 관동아이스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5~8위 순위 결정전 1라운드에서 스위스에 0-2로 패했다.

앞선 0-8 패배 설욕에는 실패했지만 단일팀은 세계 6위 스위스를 상대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스위스는 지난 10일 단일팀의 역사적인 올림픽 데뷔전 무대의 상대였다. 단일팀은 화제를 모으며 올림픽 무대에 올랐지만 높은 스위스 벽을 실감하며 0-8의 대패를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 3연패(1득점 20실점)로 일찌감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반면, 스위스는 3연승(13득점 2실점)을 내달리며 4강 플레이오프에 올랐었다.

하지만 스위스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팀과의 4강 플레이오프에서 2-6으로 지면서 5~8위 순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단일팀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다시 만난 스위스를 상대했다.

'첫 승'이라는 목표가 남은 단일팀과 달리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기가 떨어진 스위스는 전날 경기에 따른 체력부담까지 겹치면서 조별리그 1차전 패와 같은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단일팀은 과감하고 부지런히 링크를 누비며 스위스를 압박했다.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골리 신소정의 눈부신 선방 퍼레이드를 앞세워 난적 스위스를 2실점으로 막았다.

단일팀은 20일 오후 12시 10분에 진행되는 7~8위 결정전을 끝으로 역사적인 올림픽 무대에서 퇴장한다. 한국의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과 대결한다.

스웨덴은 18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1-2 패하면서 7~8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매달과는 상관없는 '꼴찌 싸움'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린다.

논란 속에 구성됐지만, 평화 올림픽을 상징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마지막 호흡을 맞추는 경기다. 여기에 '첫 승'이라는 목표도 있다.

스웨덴은 일본전 연장 승부 끝에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앞선 0-8 대패를 만회하겠다는 단일팀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화제의 중심에 섰던 단일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감격의 승리를 거두고 '지구촌 대축제'의 여정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5일 일본전에서 단일팀의 첫 골을 장식한 펠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명예의 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랜디 회수 그리핀은 0-2로 뒤지던 2파이어드 9분 31초에 득점을 하면서 단일팀에 첫 골을 안겼다. 그리핀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혼혈 선수로 하버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는 '엘리트 국가대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일 강원도 강릉 관동아이스하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순위 결정전을 마친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의 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랜디 회수 그리핀은 0-2로 뒤지던 2파이어드 9분 31초에 득점을 하면서 단일팀에 첫 골을 안겼다.

그리핀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혼혈 선수로 하버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는 '엘리트 국가대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이크 잡은 피겨 스타들

각국 방송해설자로 나서

'은반 위의 별'들로 빛난 강릉 아이스아레나였다.

지난 17일 일본 하뉴 유즈루의 올림픽 2연패로 남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일정이 마무리됐다. '4회전 점프'를 앞세운 신예 스케이타들이 은반을 빛낸 이날, 경기개막을 알리는 '은반 위의 별'들로 강릉 아이스아레나 관중석도 별들로 반짝거렸다.

전 세계 피겨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옛 스타'들이 대거 방송해설자로 변신해 강릉을 찾았다.

이날 금·은메달을 쓸쓸이한 일본은 중계진도 화려했다. 2006년 토리노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라카와 시즈카, 석식장을 입고 활약했던 스즈키 아키코 그리고 2010 밴쿠버올림픽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 다카하시 다이스케가 방송해설자로 자리를 했다.

여기에 일본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도 특별 게스트로 카메라 앞에서 시시때때로 눈길을 끌었다.

대표 선발전 탈락으로 평창행이 불발된 미국의 예술리 와그너는 도요타의 홍보 대사로 경기장을 찾아 별들의 진치를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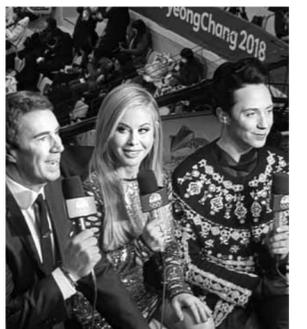
국내 중계진도 우리나라 피겨의 별들로 채워졌다. 김해진과 곡민정이 각각 MBC와 KBS 해설위원, 차준환과 마지막까지 평창행을 다뤘던 이준형은 SBS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대표 선발전 1·2차전 선두를 지키다가

역전을 허용했던 이준형은 "(아쉬움을) 훌훌 잘 털어버렸다. 선발전 다음날부터 괜찮았다. 이 자리에 이렇게라도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자리에서나마 (차)준환이를 응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준환이가 아침까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경기를 잘해줘서 고맙고 기특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또 "지난 소치 대회 때 보다 확실히 남자 선수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 세계 선수들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쿼드러플(4회전) 점프가 필수일 것 같다. 네이선 첸 선수의 6번 쿼드러플 점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놀란 표정을 지은 뒤 "(링크)안쪽에서는 내 것에만 집중했다. 해설자가 되니 신경 못 썼던 부분이 보이고, 얼마나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도 알게 됐다. 비록 올림픽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행복한 시즌을 보냈다. 다시 선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 이준형의 각오도 언급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왕년의 별'은 개성 만점의 '꽃미남' 피겨 스타 조니 위어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타라 리핀스(가운데)와 조니 위어(오른쪽).

금메달에 빛나는 타라 리핀스기이었다.

미국 NBC 해설자로 평창을 찾은 두 사람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리허설 도중에는 카메라를 보고 익살스러운 춤을 추는 등 여전한 끼를 발휘한 환상의 콤플렉스였다. 두 사람은 취재진 사이에서도 가장 많은 사진 촬영 요청을 받는 등 경기장 밖의 '금메달리스트'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지분물건/문중상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천·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북미대화 중재·남북 정상회담 환경 조성

문 대통령 설 연휴 정국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나흘간의 설 연휴 정국 구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집권 2년 차 정국 운영에 돌입했다.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 삶의 변화 체감'을 새해 화두로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6월 지방선거, 개헌 등 메가톤급 현안이 산적하다.

그 어느 하나도 잘못 다뤄다가는 정권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폭발성이 크다. 일단 문 대통령 손에 쥐어진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 조성'을 전제로 수락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은 높지만 마냥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우선 북핵 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성공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

북미 갈등 최고조 상황에서

성급한 회담 추진은 무리

6월 지방선거도 현안

개헌·공수처 설립 박차

강의 입장도 중요 변수다. 남북정상회담이 당사자인 남북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등 국제사회가 얽히고설린 고차 방정식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취재진에게 "우물에서 송충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중재역'을 자처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정상 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과의 전화 통화 여부와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3국 등에서 비공식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현안이다. 실정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정국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의 정무적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헌 작업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의 속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은 다음 달 13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대국회 압박과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 등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무료 공개 강연.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2018. 2. 1(목)~3. 10(토). 2018. 3. 6(화)~2018. 8. 18(토). 2018. 3. 5(월)~2018. 8. 18(토).

부동산(대지)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3. 매각방법. 4. 기타사항. 새한대학교총장 학교법인영신학원 이사장